

신한속독 203

신한대학교 소식지



Shinhan University
Newsletter

2023
09



Only 5 One Only Win

- 신한대학교 · 의정부시 공동주관 중앙아시아 영화제
- 2023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 입학식
- 신한대학교-투르크메니스탄 문화의 날 행사 개최
-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찼던 신한대체전
- 2023 신한대학교 동아리 박람회 개최

-
- 태권도 신흥 명문 신한대, 세계로의 발돋움
 - 취업을 수도권 5위 경인지역 2위의 산실, 신한대학교 취창업센터
 - 신한대학교 경영대학 제1대 학생회 [시즌], E-SPORTS 대회 개최
 - 신한외 경쟁력, 마이크로디그리 교육 과정
 - 국가고시 합격은 '떼어 놓은 당상' 신한대학교 보건 · 간호 대학 국가고시 평균 합격률 94%

신한대학교 명예박사&교수 학위수여식 신한외의 새로운 가족 : 카자흐스탄 내무부 장관, 알마티 경찰대 총장, 오언석 도봉구청장 / Culture 서평



표지제호와 함께 표기된 위의 패턴은 점자로 '독특'을 표현한 것입니다.

COVER STORY

신한대-몽골 생태생명공학연구센터 개소 등 글로벌 대학과의 MOU를 실현하고 있는 신한대학교의 Globalization을 G로 형상화하여 표현하였습니다.

- 발행인 홍창 강성중 • 발행처 신한대학교 신문사 경기도 의정부시 호암로 95 • Tel. 031 870 3266
- 발행일 2023. 02. 27 • 편집주간 이선민 교수 • 디자인자문 김기순 교수 • 편집장 정윤지 기자
- 디자인 기획 신한대학교 홍보팀 • Tel 031 870 3407 • 정가 8,000원

1972 - 2022

Contents

- 01_US.KOREA.SOL.1010.599.GX
- 02_이념과 비전
- 03_편집장 논설
- 05_중앙아시아 영화제
- 09_2023 제2회 신한대학교 총장기 전국태권도대회
- 16_2023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 22_2023년 신입생 입학식
- 28_취창업지원센터 프로그램
- 32_보건계열학과 국가고시 합격률
- 34_신한대학교-투르크메니스탄 문화의 날 행사 개최
- 36_신한대학교 명예박사&교수 학위 수여식
- 40_신한대학교 체전
- 42_2023년 동아리 박람회
- 44_경영대 학생회 E-SPORT대회 개최
- 46_마이크로디그리 운영 현황
- 48_에드워드 호퍼: 길 위에서
- 52_나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만 남기기로 했다
- 54_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 56_의정부 미술도서관 소개
- 58_이모저모
- 68_기부금 현황
- 70_편집후기

SHINHAN UNIVERSITY SOLUTION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한대학교의 교육목표는 글로벌 인재창조와 창조·융합교육의 중심으로 10년 내 10위권 진입 목표 및 5세부터 99세까지 포함하는 평생교육을 통해 글로벌 무대에서의 새로운 교육의 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 5세부터 99세까지 평생학습중심대학!
- ✓ 2023 수시모집 5년 연속 경기북부 1위!
- ✓ 창조와 융합·지구촌 교육의 중심!
- ✓ 세계로 뻗어가는 신한(信韓)류 시대!



[US. KOREA SOL]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신한대학교의 미래교육 솔루션
[10/10]	10년 내 10위권으로의 진입 목표
[599]	5세부터 99세까지를 아우르는 평생교육 지향
[GX] Global Express	글로벌 시대 국제 무대에서의 새로운 교육의 길을 제시



대학이념





Shinhan

멀리 날아갈 '신한인'들에게

<편집장 논설>

언제부터인가, 시간의 가성비를 중시하는 세상이 된 것 같습니다. 남들에게 뒤처지는 것을 경계하고, 많은 일을 빠르게 처리하는 이른바 '빨리빨리' 문화가 삶 곳곳에 스며들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확실히 무언가를 '빨리'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삶은 '오늘'과 '내일'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한함 속의 무한같이 긴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고, 이 속에서 우리는 더욱 멀리 보고, 멀리 날아가야 합니다. 이런 삶 속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닌 방향과 시작점입니다.

사격이나 양궁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영점을 잡아보셨을 겁니다. 초기의 방향 설정인 영점을 맞추지 않으면 화살이나 총알은 어디론가 날아갈 뿐, 목표물을 맞출 수는 없습니다. 영점이 조금만 흐트러져도 100m 거리의 표적지에서는 큰 오차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덧붙이자면, 우리 삶은 총알과 화살 따위처럼 직선운동같은 물리 법칙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굽어지고 휘어지고 간혹 멈춰 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점에서 세진 영점을 다잡아, 방향과 우여곡절 끝에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진정한 삶의 아름다움이자 청춘일 것입니다.

우리 신한대학교는 지난해 50주년을 맞이해, 앞으로의 100년을 위한 시작점에 섰습니다. 이번 203호 신한특독은 100년을 향한 시작점을 맞이해 '중앙아시아 영화제 개최', '투르크메니스탄 문화의 날 행사' 등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이야기들을 담았습니다. 아무쪼록,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신한대학교의 이야기를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6월 편집장 김민성

중앙아시아 영화제 성황리에 열려

신한대학교 · 의정부시 공동주관 ...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8개국 영화 12편 상영

지난 4월 28일, 신한대학교 은혜관 지하체육관에서 '중앙아시아 영화제'의 개막식이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영화제는 의정부시와 공동 주관한 것으로, 총 8개 국가가 참여하여 각 국가의 우수 영화를 소개하는 문화 교류의 장이었다. 중앙아시아 5개국(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과 특별 초청 3개국(아제르바이잔, 몽골, 인도네시아)에서 출품된 총 12편의 영화가 소개되었으며, 행사는 4월 28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4월 29일 토요일까지 진행됐다. 영화제에 출품된 각국의 우수 영화 작품들은 의정부 CGV와 민락동 CGV와 협력하여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무료 상영을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시작 3시간 전부터 대기열이 늘어질 정도로 지역 시민들의 열띤 관심 속에서 진행됐다. 신한대학교는 행사장 안전 통제를 위해 1,000여 명으로 현장 입장 인원을 제한했는데, 자리는 순식간에 매진되었다. 입장한 이들은 지역 시민부터 대학생, 외국인 방문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말 그대로 '문화 교류 축제의 장'이라는 인식을 특히 주었다.

■ 국내외에 강렬한 인상 남긴 신한대학교 - 개막식&핸드프린팅 행사

개막식 현장에는 중앙아시아 각국과 의정부 지역사회의 중역들이 귀빈으로 참석했다. 주한카자흐스탄대사관 바킵 듀센바예프 대사와 주한키르기스스탄대사관의 아이다 이스마일로바 대사 등 해외 귀빈 8명은 중앙아시아 영화제에 참가한 국가들을 대표하여 자리를 빛내주었고, 지역사회에서는 강성중 신한대학교 총장과 김동근 의정부 시장, 김민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최영희 국민의힘 국회의원 등 국내 귀빈 15명이 참가해 의정부 지역사회와 중앙아시아 각 국가 간의 화합이라는 의미를 더했다.

개막식에 직접 참가하지 못한 국내 인사들의 축전도 이어졌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축전을 통해 "의정부에서 개최된 중앙아시아 영화제는 경기 북부의 문화적 잠재력을 키우고, 중앙아시아 각국과의 문화협력을 높이리라 확신합니다. 앞으로, 중앙아시아 영화제가 더욱 번창하여 아시아 문화의 중요 행사로 성장하길 기원합니다."라며 축하 인사를 전했다. 외에도 각국 대사관의 주요 인사들과 국내 인사들의 영상 축전을 통해 더욱 값진 개막식이 됐다.

한편, 신한대학교는 중앙아시아 영화제 개막식을 기념하기 위해 각국 대사들과 지역사회 귀빈들의 핸드프린팅 행사를 함께 진행했다. 우즈베키스탄의 찬조 쿠르바노프 일등서기관, 인도네시아 간니 술리스티안토 대사 등 각국 대표 6명과 신한대학교 강성중 총장, 김동근 의정부 시장 등 지역사회 대표 7명은 점토판에 손도장을 남기며 처음 개최된 영화제를 기념했다.





■ 전통과 K-POP 대세의 축하공연

각 국가 간 문화 교류 행사로서의 의미도 담고 있는 만큼, 문화를 대표하는 축하공연도 빼놓을 수 없었다. 이날 축하공연은 우리나라의 전통 예술 공연과 현대적인 K-POP 공연의 두 가지 면모를 모두 보여주었다.

예술의 창조적 계승을 추구하는 '고려예술단'은 전통 악기에 속하는 대북을 이용한 '태고의 울림' 공연을 진행했고, 신한대학교 태권도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태권도 시범단은 태권도에 기반한 종합 예술 공연을 선보이며 해외 귀빈들 앞에서 우리나라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제대로 보여주었다.

전통 공연에 이어서는 아이돌 걸그룹인 '스테이씨(STACY)', '오마이걸', '마마무+'와 비보이그룹인 '퓨전엠씨'의 무대가 이어졌다. 특히 K-POP 대세 아이돌 걸그룹인 '스테이씨(STACY)'와 '오마이걸'은 각각 'Teddy bear'와 '살짝 설렘' 등의 대표곡으로 무장해 무대를 장악했으며, 각국 대사 및 외국인 관계자들에게 세계에 널리 뻗친 한류의 원동력인 K-POP을 제대로 보여주었다.



■ 중앙아시아 국가별 문화체험 및 영화 부스

한편, 개막식 이전까지의 주중 행사에는 신한대학교 내에 영화와 관련한 각종 부스와 문화체험 부스가 마련되어 볼거리를 더했다. 영화제라는 이름에 걸맞게, 영상과 관련된 장비를 체험할 수 있는 '필름 마켓' 부스 등이 마련되어 영화&영상 분야의 진로를 꿈꾸는 이들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해주었다.

또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몽골, 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전통 의상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부스도 마련되었다. 행사장에는 국가별 전통 의상이나 공예품, 페인스페인팅 등의 체험부스가 설치되어 각국의 문화를 교류할 수 있는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 이날 부스를 체험한 임상병리학과 한준희 학생은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하는, 실제 촬영에 사용되는 장비를 직접 보게 되어 신기했다"라며 부스 체험 소감을 밝혔다.

■ 아시아의 중심으로, 신한대학교의 미래는?

올해 열린 의정부 중앙아시아 영화제는 중앙아시아 국제 사회 내의 신한대학교 입지를 견고히 하는 축제의 장이었다. 한편, 세계로 뻗어나가려는 신한대학교의 노력은 비단 이번 행사에 국한하지 않는다. 올해 6월 8일에는 카자흐스탄 알마티 경찰 아카데미와 MOU를 맺는 등 아시아의 중심의 명문 대학으로 거듭나려는 노력을 꾸준히 보이고 있다. 4차 산업시대와 초연결 사회로 세상이 변화를 거듭하는 가운데, 아시아의 중심에 설 신한대학교의 귀추가 주목된다.

〈김민성 조수빈 기자〉



태권도 신흥 명문 신한대, 세계로의 발돋움

제 2회 신한대학교 총장기 전국태권도 대회 개최
명예박사 및 명예학장 수여식

신한대학교가 올해 세계 최초로 태권도만의 단과대학을 설립하며, 태권도 인재 양성에 점차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그 시작을 알리듯 지난 4월에 '제 2회 신한대학교 총장기 전국태권도 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신한대학교 총장기 전국태권도 대회의 시작은 202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22년 4월에 처음 실시된 제 1회 총장기 대회는 창학 50주년 및 카자흐스탄 수교 30주년 기념으로 성대하게 진행되었다. 당시 코로나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약 2,000명 가량의 매우 많은 인파가 오고갔다. 당시 강성종 총장은 "신한대학교는 무엇이든 될 수도, 무엇이든 할 수도 있는 만큼 앞으로를 지켜봐 달라"며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신한대학교는 강성종 총장의 포부에 맞춰 올해에도 제 2회 총장기 전국태권도 대회를 개최하며, 작년의 열기를 이어나갔다. 이번 대회에는 약 5,000명 가량의 인원이 참가하였으며, 경기는 겨루기, 시범, 품새 3가지의 부문으로 나누어 총 3주에 걸쳐 진행되었다. 신한대학교 태권도교육연구원 최상진 원장은 "신한대학교에 태권도 단과대학이 설치되며, 태권도의 미래 인재가 될 23년도 신입생을 100명이나 선발했다. 신한대학교 태권도대학은 앞으로도 모든 교직원들이 학생지도와 다양한 사업들을 운영하여 우리 학생들이 많은 교육과 실전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제 2회 신한대학교 총장기 전국태권도대회에 출전하는 많은 선수들이 한 명도 부상 없이 노력한 만큼 값진 상을 가져가길 바란다."고 개최사를 진행하였다.



올해 대회에 있어 작년과 또 다른 점이 있다면 바로 개회식에서 진행된 '명예박사 및 학장 학위 수여식'이었다. 명예박사 학위는 학술, 문화, 체육 활동에 공헌하여 인류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사람에게 수여하는 학위로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선정에 이른다.

이날 경영 전공 분야의 명예박사 학위는 세계경찰태권도연맹의 방승호 총재에게 수여되었다. 필립스그룹의 세계 라이선스 권한자로 태권도와 친환경 기업을 이끌어 가는 등의 강한 추진력을 발휘했으며, 친환경 산업의 세계적 선두주자로 성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방 총재는 "태권도를 통해 우수한 졸업생을 배출하고 세계 속에 뻗어 나가고 있는 신한대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다"며 "본교와 학생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망설이지 않고 최선을 다해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다음으로 명예학장 학위는 미국태권도연맹 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이상철 고문이 수여받았다. 이상철 고문은 1979년 독일 세계선수권대회에 이어 1988년 서울올림픽까지 10년 동안 미국 국가대표의 감독을 맡은 바 있다. 미국 태권도계의 대부라 불리는 이상철 회장은 "신한대학교 태권도, 체육전공분야에 명예학장으로 임명된 것에 매우 뜻깊고 감사하다."고 전하면서 "미국 내 태권도와 신한대학교가 상호 교류를 통해 발전적인 계기를 마련해줄 것을 당부하는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이고 미국으로 돌아가면 태권도를 통한 상호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며 학위 수여 소감을 밝혔다.

개회식의 마지막에는 축하 공연으로 신한대학교 태권도 시범, 품새, 겨루기의 합동 공연이 이루어지며, 화려한 퍼포먼스와 수준 높은 시범을 펼쳐 엄청난 반응을 이끌어냈다.

본격적인 대회는 부문별로 나뉘어 각기 다른 날에 진행되었다. 3월 31일부터 4월 3일까지는 겨루기 부문이, 4월 7일부터 9일까지는 시범 부문이, 4월 15일부터



17일까지는 품새 부문이 진행되며 약 3주 간의 여정이 펼쳐졌다.

이번 대회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전국 총장기 대회 최초로 신규 공인 태권도소프트 전자호구를 도입하여 경기를 실시하였다는 것이다. 그 결과, 보다 안정적인 경기 진행을 통해 대회 참여자와 관계자들에게 호평을 받으며 대회가 진행되었다.

3월 31일부터 4월 4일 간 진행된 겨루기 대회에서는 남자 헤비급, 핀급, 밴텀급, 페더급, 여자 플라이급, 라이트급 등의 매우 다양한 분류에 많은 선수들이 출전하여 입상을 하였다. 그중에서도 겨루기 남자 고등부 종합우승은 한성고등학교가, 준우승은 삼일고등학교가 차지하였고, 여자 고등부 종합우승에는 대구보건고등학교가, 준우승에는 충북체육고등학교가 이름을 올렸다.

그 뒤를 이어 4월 7일부터는 시범 대회가 진행되었으며, 4월 15일부터 17일까지의 품새 대회를 끝으로 대회는 막을 내렸다.

이번 제 2회 신한대학교 총장기 대회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땀이 더해져 보다 성대하고 화려하게 진행되었다. 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은 경기를 보러 자리를 찾은 수많은 내빈 및 관객들에게 화답하듯 강렬한 눈빛과 수준 높은 실력을 선보였다. 선수, 관객 할 것 없이 서로의 열정을 주고받으며 그 어느 때보다 뜨거웠던 3주 간의 여정을 보냈다. 이번 대회를 발판 삼아 출전 선수들이 더 큰 세계 무대로 도약하는 신한인의 인재가 되길 바라며, 더불어 신한대학교가 태권도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올 수 있는 태권도 명문으로 자리 잡길 기원해본다.

<임민주 기자>

"우리, 이제 신한인"

2023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개최
코로나 이후, 4년 만의 대면 OT 진행
'신한인' 자질 기르고 자긍심 높여



지난 2월 20일부터 22일, 2박 3일간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2023년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2019년 이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온라인 비대면 환경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에 4년 만에 대면 환경에서 다시 열린 2023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신한인'들의 기대감과 반가움 속에 개최되었다.

행사 당일에는 신입생 1,480명과 총학생회, 학생기획단을 포함한 학생자치단체 170명, 교직원 및 학생팀 등의 대학본부 70명으로 총 1,720명이 참여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학생기획단을 구성하여 이루어졌다는 점도 눈여겨 볼 만하다.

학생기획단과 대학은 지속적인 의견교류를 통해 학생들의 아이디어가 행사에 적극적으로 반영되게 했으며, 학생들이 주축이 되어 진행되도록 했다.

행사는 신한대학교 신입생들을 위한 학교 프로그램을 알리고, 각종 정보공유를 통한 새롭고 신선한 형식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분위기를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었다. 신입생들은 국가와 인류 발전에 공헌하는 '신한인'이 갖춰야 할 자질에 대해 배우는 시간을 가졌으며, 미래 사회를 견인할 'SMART' 인재 양성 실천 대학으로써의 방향성을 마음에 새겼다. 이를 통해 집단 공동체를 형성함에 따라 가질 수 있는 소속감과 자긍심을 높일 수 있었다.

또한 수강 신청, 장학금 신청, 졸업요건 등 대학 생활의 필수 내용에 대해 함께 알아보는 시간도 가졌다. 단체로 진행된 프로그램에서는 단과대학별 대학 생활 팁 및 학생자치단체, 학과 자치기구, 동아리 등 알찬 학교생활을 보낼 수 있는 각종 정보를 안내받았고, 각 학과(부) 별 소개 시간에는 학과의 커리큘럼에 대해 소개와 전반적인 흐름을 들으며 앞으로 펼쳐질 캠퍼스 생활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다.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정보 공유와 동시에 학교 선후배 간 교류의 장 역할도 톡톡히 수행했다. 앞서 말한 단과대학, 학과(부) 별 프로그램을 통해 앞으로 대학 생활을 함께할 동기들뿐만 아니라 선후배 간의 친목 또한 다지며 캠퍼스 생활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쌓아갈 수 있었다. 이런 시간을 통해, 오리엔테이션에 참여한 신입생들은 학업 의욕 향상 및 대학 생활 적응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다양한 레크리에이션과 축하 공연도 오리엔테이션을 즐기는 신입생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시간이었다. 행사 첫째 날에는 신한대학교 중앙동 아리, 홍보대사 등의 축하공연과 엔믹스의 초청공연을 통해 신입생들을 환영하는 무대를 선사했다. 뒤이어 둘째 날에는 다이나믹 듀오의 초청공연과 학과(부) 별 강기자랑까지 더해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의 밤은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찼다.

2023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철저한 사전 교육과, 현장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안전과 통제에도 큰 노력을 기울였다. 오랜만에 진행되는 대면 오리엔테이션 행사인 만큼, 오프라인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에 대해 심혈을 기울인 것이다. 기존 온라인 행사라는 한계를 넘어, 올해 처음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형으로 진행된 2023년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조수빈 기자〉





2023학년도 신한대학교 제10회 입학식이 3월 2일 의정부 제1캠 퍼스 은혜관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되었다. 신한인이 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제치고 입학의 영예를 안은 자랑스러운 신한 새내기들의 정원은 1,482명이다. 수시 신입생 모집에서는 무려 1만 3,706명이 지원해 개교 이래 최다 지원자 수를 달성했다. 수시모집 평균 경쟁률은 11.53:1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정시 신입생 모집에서는 지난해보다 지원자가 1,022명 증가해 전국 4년제 대학 가운데 경쟁률 3위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첫 대면 입학식으로 거행된 본 행사는 1부 입학식, 2부 축하공연으로 나뉘어 성대하게 치러졌다. 모델 콘텐츠학과 이선진·김재범 교수의 사회를 시작으로 △기수단입장 △개식선언 △국민의례 △애국가 제창 △내빈 소개 △입학허가 선언 △우수입학생 장학증서 수여 △환영사 △축사 영상 메시지 △교가 제창 △축도 등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현장에서는 김병욱 신한대학교 초대 총장, 강성중 신한대학교 총장, 안현수 신희학원 이사장, 이석재 신한대학교 총 동문회 회장, 이채락 신한대학교 행정부 총장, 정진경 특임부 총장, 문재숙 석좌교수, 이재홍 4대 총학생회장 등 학교 관계자를 포함한 내·외빈 인사들이 대거 직접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입학한 신입생들을 큰 박수로 환영해주었다.

이어서, 신입생 전체 수석 합격자인 이유빈(간호학과)학생이 새내기들을 대표해 본인 외 1,481명 학생에 대한 입학 허가를 받았다. 강성중 총장의 입학허가 선언과 동시에 신입생들이 설렘 가득한 대학 생활에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학과 별로 수시와 정시에서 수석과 차석을 한 우수 입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이 수여됐으며, 총 151명의 학생이 장학금의 수혜를 받았다.

강성중 총장은 환영사를 통해 “신한대학교는 미래 교육을 선도하며 위기에 빛나는 대학교이며, 여러분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오늘을 준비하는 대학이 되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강 총장은 “신한대학교 학생 전체가 성공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먼 훗날 인생을 회상했을 때, 신의 한 수가 된 선택을 신한대학교로 떠올리도록 하는 것이 곧 신한대학교의 목표”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성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리며, 다시 한번, 신한대학교의 이름으로 입학을 축하한다.”라며 환영과 축하를 전했다.

이번 입학식에서는 김민철 의정부 국회의원, 김동근 의정부 시장, 강수현 양주 시장, 박형덕 동두천 시장, 주광덕 남양주 시장, 김덕현 연천 군수, 이순희 서울 강북구청장, 오연석 도봉구청장 등의 귀빈들이 신입생의 입학 축하했다. 이후, 2부 행사는 신한대학교 태권도학부의 축하공연을 끝으로 폐식 선언 후 성황리에 입학식이 마무리되었다.

〈신혜미 수습기자〉



'학생이 오고 싶어 하는 대학'

입학 경쟁률 최고 수준 신한대학교
신한의 새 역사를 써 내려갈 미래 인재 1,482명 입학
신한대학교 신입생 입학식

취업률 수도권 5위·경인지역 2위의 산실, 신한대학교 취창업센터

학생을 위한 혁신적 지원 프로그램 구축



신한대학교 학생처 취창업센터는 JUMP-UP+ 전략(진로탐색-진로설계-역량강화-실전준비)을 기반으로 첨단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역량강화 단계별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취창업센터는 재학생들의 취창업에 관련된 다양한 정책을 수립, 운영하고 지원하는 부서이다. 신한대학교는 미래 사회를 겨냥한 스마트 인재 양성 대학으로의 비전 달성을 목표로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 외 산업체의 동향과 발전 방향을 분석하여 취창업에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기획한다.

또한, 신한대학교 취창업센터는 디지털 시대에 맞춰 AI 자기소개서 컨설팅 프로그램 및 AI 면접실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채용 트렌드로 언급된 '디지털 채용의 가속화, 실무형 인재 채용, 하이브리드 채용' 세 가지 키워드를 반영한 기획이다. 2022년 하반기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비대면 면접 환경을 조성하고 화상 면접을 필요로 하는 취업준비생들에게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언택트 직무 인턴십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이는 학생들에게 해당 직무의 역량을 갖춘 실무형 인재들에 대한 기업의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기회를 제공한다. 운영은 3주간 진행되었으며 인문사회, 이공자연 등 계열별로 적용된 프로젝트를 수행 및 완성하며 성공적으로 마쳤다.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은 "비대면으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4차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을 배우고, 관심 분야의 실습 과정도 겪어볼 수 있어서 좋았다."고 전했다.

이뿐만 아니라 취업과 직무와 관련해 취업 멘토링도 실시하였다. 학과별 졸업생 또는 관련 분야 재직자를 초청하여 진행하였으며 998명의 학생이 참석할 정도로 많은 학생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해당 프로그램은 임상병리학과와 <임상 병리사의 취업과 병리과 소개>, 토지행정학과와 <졸업 선배에게 듣는 LX 한국 국토정보공사 합격의 비밀> 등으로 진행되었다. 또한 '클래스 101'의 커리어 MD 직무 현직자와 '아워홈'의 식품영양 및 조리 직무 현직자의 멘토링을 통해 미래인재들을 위한 직무 이해 교육도 진행되었다. 취업 멘토링 프로그램은 취업 및 사회진출의 출발선에 있는 학생들에게 진로의 방향성에 대한 길잡이 역할을 해주었으며, 실무 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참여 학생들은 진로 고민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과 더불어 직무 수행에 적용되는 전공 지식에 대해 알 수 있어서 유익했다고 전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환경이 풀리기 시작한 지난해에는 글로벌 이노베이터 양성을 위한 2박 3일 창업캠프도 운영되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몽골, 우즈베키스탄 등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모여 사회적 가치에 대해 고민하고 창업 아이템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그 후 참여 학생들은 창업캠프에서 채택한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심화하여 2022학년도 창업경진대회에서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을 받는 등의 성과를 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창업캠프는 학생들의 창업아이디어 발굴 활동과 사업계획서 작성, 프레젠테이션 발표 능력 향상을 위한 특강, 팀별 멘토링 등을 통해 기업가정신 배양을 위해 힘쓰고 있다. 창업캠프의 연장선으로 곧 다가올 2023년도 하반기에는 창업아이디어 실현을 목표로 Hardware 및 Software 등의 프로그램을 활용해 최소요건제품(MVP)을 제작하는 Making MVP가 운영될 예정이다. 최소한의 요건만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창업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독자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해 낼 수 있는 능력 등 창업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본교에서는 창업 활동에 관심을 갖는 학생들을 위해 최소요건제품의 제작을 시작으로 전문가를 통한 피드백과 기업을 통한 소비자 반응조사까지의 모든 과정을 지원할 의사를 밝혔다. 이와 더불어 프로그램을 통해 산출한 결과물은 교내 창업 경진대회와 정부 기관이 주관하는 창업지원 사업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더하여, 취창업센터에서 매년 실시하는 창업경진대회는 창업에 관심 있는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대회로서 우수 아이템의 발굴을 통한 사업 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이 중점이다. 본 대회에서는 취창업센터에 등록된 전체 창업동아리를 포함, 창업에 관심 있는 재학생들이 서류평가와 발표평가를 통해 본인들의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심사위원들에게 이제까지 수행해왔던 창업활동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조언하는 시간을 가진다. 2022학년도 15개 팀(100명)선정을 목표로 프로그램을 기획하였으며 최종적으로 19개팀(123명)이 참여하였고 그 중 17개 팀이 수상하였다. 학생들은 창업경진대회에 참여해 독자적인 창업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에게 창업 활동 및 아이디어에 대한 평가와 방향성에 대한 조언을 얻는다. 심사위원들은 객관적인 평가 및 질의응답을 통해 사업화에 있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짚어주고 이에 대한 극복 방안을 제시하여 성공적인 창업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한다. 취창업센터는 앞으로도 신한대학교의 우수한 창업인재와 아이템을 발굴하여 예비창업단계를 집중 지원, 학생 창업자를 육성할 것임을 밝혔다.

학생들의 취업을 위한 취창업센터와 대학의 여러 구성원들의 노력은 2023년 1월 대학알리미에 발표된 대학정보공시(2021년 12월 31일 기준)에서 알 수 있다. 신한대학교(본교)가 76.6%의 취업률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2.6% 급상승한 값의 결과를 나타냈고, 이는 4년제 대학 취업률 수도권(서울 포함) 5위, 경인 지역 2위를 기록한 값이다. 취창업센터는 매년 신한대학교 학생들의 취업을 제고를 위해 다양한 취·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속적인 취업을 상승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참여 학생들의 개인 역량을 분석하고 진로 설정과 취업 준비 및 활성화를 위해 취업 멘토링부터 면접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학과 및 전공 맞춤형 교육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매년 수요 요구 조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신한대학교 학생들의 취업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김유진 기자, 구현지 수습기자>



국가고시 합격은 '떼어 놓은 당상'

신한대학교 보건·간호 대학 국가고시 평균 합격률 94%
현장 중심의 인재 양성을 통한, 보건의료인 육성의 요람



신한대학교의 의료·보건계열 학과는 지난해 개교 50주년을 맞은 신한대학교와 역사를 함께한다. 신한대학교의 전신인 신홍보건전문대학 시절부터 이어진 긴 역사에 부끄럽지 않게, 2023년 졸업예정자 학생들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주관하는 '2022년 및 2023년 국가고시 시험'에서 94%의 평균 합격률로 우수한 성과를 보였다. 보건대학의 치기공학과, 치위생학과, 임상병리학과, 방사선학과 학생들과 간호대학의 간호학과 학생들까지 총 390명이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 응시했고, 이들 중 시험에 합격 학생은 무려 367명이다. 반면, 전국의 시험 과목별 합격률 평균은 84%에 불과하다.

치기공학과는 총 70명의 응시자 중에서 65명의 학생이 합격하여 92.8%의 합격률을 거뒀다. 또한 치위생학과는 92.1%의 합격률을 달성했다. 방사선학과는 51명 응시자 중 47명의 학생이 합격하여 92.1%의 합격률을 달성하였고, 임상병리학과는 95명의 응시자 중 92명의 학생이 합격하여 96.8%의 높은 합격률을 보여주었다. 간호대학의 간호학과는 123명의 응시자 중 117명의 합격으로 95.9%라는 합격률을 달성하였다.

'대다수 합격'의 쾌거는 2022년 11월 26일에 시행된 제50회 치기공과사 국가고시 시험부터 시작됐다. 이날 신한대학교 치기공학과와 학생 70명이 응시했고, 그중 65명이 합격의 명예를 안았다. 전국 합격률은 82%로 나타났으며 신한대 치기공학과 학생들의 합격률은 92.8%로 집계되었다. 전국 합격률보다 10.8% 더 높은 합격률을 보이며, 치기공학과 학생들의 노력을 증명해냈다.

2022년 12월 11일에 실시된 임상병리사 국가고시와 치과위생사 국가고시 시험에서는 임상병리학과와 치위생학과가 뒤를 이어 높은 합격률을 보여줬다. 임상병리학과는 95명 학생들이 시험에 응시했고, 그중 92명이 합격했다. 같은 날 진행된 치과위생사 국가고시에서도 신한대학교 치위생학과 학생들은 92.15%의 합격률을 보여주었다. 학과 '대다수 합격' 쾌거의 포문을 연 치기공학과와 마찬가지로, 두 학과의 평균 합격률 역시, 전국 평균 합격률보다 각각 10% 정도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신한대학교 방사선학과와 합격률도 눈여겨 볼 만하다. 2022년 12월 17일에 시행된 제50회 방사선사 국가고시에는 신한대학교 방사선학과 학생 51명이 응시, 46명이 합격해 92.1%의 합격률을 보였다. 특히 눈여겨볼 만한 점은 지난 50회 방사선사 국가고시의 전국 합격률은 75%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신한대학교 방사선학과 학생들은 전국 합격률보다 무려 17.1% 높은 수치를 보이며, 전국의 방사선학과 대학들 사이에서 최상위권을 기록했다.

신한대학교는 '현장 중심의 인재 양성'이라는 건학 이념에 맞춰, 전문 보건의료인 양성을 위해 힘쓰고 있다. 이러한 성과가 나타나듯, 보건대학과 간호대학 학생들은 보건의료인으로서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인 국가고시에서 전국 최우수 수준의 합격률을 보여주었다. 학교 차원의 꾸준한 노력과 우수한 교수진의 지도로 일궈낸 2022년도 치기공과사와 치과위생사, 임상병리사 그리고 방사선사, 2023년 간호사 국가고시의 결과는 전 학과 90% 이상의 자랑스러운 합격률로 돌아왔다. 이는 학교에서 배우는 후배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하나의 자극점이 되어 더 발전하는 신한대학교의 의료·보건계열 학과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슬비 기자>



문화의 날 행사 성황리 개최, 국제화에 앞장

신한대학교, 투르크메니스탄 문화의 날 행사 개최
미국 콜로라도 컬리지 부총장단 방문까지 ... '역대급 규모'



지난 3월 31일 신한대학교 벨엘관 세미나실 및 에벤에셀관에서 투르크메니스탄 문화의 날 행사가 진행되었다. 문화의 날 행사는 중앙아시아 국가 중 하나인 투르크메니스탄 문화의 날 행사 교류를 통하여 타 문화에 대한 이해 및 공감 능력을 확산시키고, 본교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기 위함에 의의를 둔다. 이날 행사에는 투르크메니스탄 대사관의 베겐치 두르디예프 대사, 문화부의 쿠르반무라트 미라달리예프 차관, 과학원의 미

라트 투바코프 원장 외 37명의 인사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행사는 강성종 총장의 환영사와 투르크메니스탄 대사의 답사부터 시작하여, '북' 공연, 투르크메니스탄 공연, 태권도 공연 등의 화려하고 다채로운 공연들로 채워졌다. 또한 에벤에셀관 지하 1층으로 이동하여 투르크메니스탄의 공연팀과의 여유로운 티타임도 진행되었다.

또한 공연뿐만 아니라 에벤에셀관 의정부영상미디어센터 상영관에서 진행된 '투르크메니스탄 영화제'를 통해 투르크메니스탄의 시인 관련 역사 영화인 '이스타린'을 상영하기도 하였다. 이는 중앙아시아 영화제에도 출품된 영화로 높은 완성도와 작품성을 자랑하는 영화이다. 영화 상영을 끝으로 투르크메니스탄 문화의 날 행사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행사에서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3월 28일부터 4월 2일 총 6일간 진행된 미국 콜로라도 컬리지(Colorado College) 부총장단 본교 방문 환영 행사가 겹쳐 더욱 풍성하게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콜로라도 컬리지 부총장단 방문 행사는 작년 12월 미국 콜로라도 컬리지의 방문단이 신한대학교에 방문한 이후, 본격적인 국제 교류에 있어 세부 협의를 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MOU 추진을 위한 본교 캠퍼스 견학 및 학생 교류 협의, 콜로라도 컬리지 아레나에서 개최하는 U.S. Open 태권도 한마당 참가 협의, 제2회 신한대학교 총장기 전국 태권도 대회 참석 및 관련 교류 협의 등이 이루어졌다. 행사를 위해 미국 콜로라도 컬리지에서는 Emily Chan(에밀리 찬) 부총장 및 학장, Miroslav 'Miro' Kummel(미로슬로브 쿨멜) 조교수, 이상철 미국 태권도위원회 회장이 자리를 찾았다.

부총장단은 방문 기간 중 31일에 진행된 투르크메니스탄 문화의 날 공연에 참석하여 K-POP 공연, 투르크메니스탄 공연, 태권도 공연을 관람하였으며, 화려한 공연을 보고 아낌없는 호응과 박수를 보내주었다.

이번에 진행된 투르크메니스탄 문화의 날 행사부터 미국 콜로라도 컬리지 방문 행사, 의정부시와 공동 주최하는 중앙아시아 영화제 등 신한대학교는 이러한 행사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타국과의 문화 교류에 힘을 쓰며 글로벌화에 앞장서고 있다. 앞으로 신한대학교가 만들고 발전시켜 나갈 다문화적 미래가 어떨지 그 행보가 기대된다.

<이민주 기자, 최지원 수습기자>





신한대학교는 지난 6월 7일, 에벤에셀관 컨벤션 홀에서 명예박사&명예교수 학위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번 수여식을 통해 신한 의 새 가족이 된 인원은 총 세 명으로, 오연석 도봉구청장과 마라트 아흐메트자노프 카자흐스탄 내무부 장관, 사이트베코프 아이다르 알마티 경찰 아카데미 총장이 그 주인공이다. 오연석 도봉구청장과 마라트 아흐메트자노프 내무부 장관은 신한대학교 명예 행정학 박사, 사이트베코프 알마티 경찰 아카데미 총장은 명예교수에 임명됐다.

이날 행사에는 오연석 도봉구청장, 사이트베코프 알마티 경찰 아카데미 총장, 신한대학교 강성중 총장과 신한대학교의 각 대학 학장 등 20여 명의 내외 귀빈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다. 행사는 개회사, 예도단 입장, 내외빈 입장, 내외빈 소개, 태권도 시범공연, 도복 및 단증 전달, 축사, 명예박사 학위 수여, 명예교수 임명장 수여, 기념사진 촬영으로 진행됐다.

강성중 총장은 축사를 통해 “각 지역과 사회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에게 신한대학교 이름의 학위를 드리게 되어 기쁩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 됐습니다. 가족의 발전은 우리 모두의 발전입니다.”라고 전하며 신한대학교의 새 가족들을 맞이했다.

이날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오연석 도봉구청장은 “명문사학이자 세계를 넘어서는 신한대학교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은 것을 크나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이어서 그는 “대학과 지역사회는 동면의 양면처럼 밀접한 관계입니다. 지역사회 없는 대학, 대학 없는 지역사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라며 앞으로 100년의 미래를 신한대학교와 함께 만들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 사이트베코프 알마티 경찰 아카데미 총장은 “우리는 대한민국의 명문 대학인 신한대학교와 협력을 시작했습니다. 우리(알마티) 경찰 아카데미는 신한대학교와 함께 양국의 치안 분야 발전을 위해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라며 소감과 각오를 전했다.

한편, 신한대학교의 지역사회와 국제교류 협력을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신한대학교는 수여식 하루 뒤인 6월 8일에 알마티 경찰 아카데미와 사이버보안 및 드론 관련 교육 분야에 대한 상호 업무 협약(MOU) 체결식을 가졌고, 지난 5월 17일에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관계 구축을 위해 도봉구청과 MOU를 체결한 바 있다. 이외에도 신한대학교는 중앙아시아 영화제 개최와 미 2사단과 CLEP(Culture with Language Exchange Program) 영어회화 프로그램을 개최하는 등 지역사회와 국제 사회에서의 경쟁력을 얻기 위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국내 학령인구의 감소와 인구 절벽이라는 대학의 위기 속에서, 신한대학교는 포괄적인 교류를 통해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개교 50주년을 맞은 신한대학교가 앞으로 나아갈 100년의 미래가 기대된다.

<김민성 기자>

**신한의 새로운 가족 :
카자흐스탄 내무부 장관, 알마티 경찰대 총장, 오연석 도봉구청장**

신한대학교 명예 박사·교수 학위 수여식 개최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찼던 '신한대체전'

열띤 응원과 함성을 자아내는 경기를 보여 주다
치기공학과 또 한 번 종합우승 거머쥐어



4년간의 기다림 끝에, 지난 5월 18일 신한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신한대체전이 개최되었다. 19학번 이후 입학생부터는 체전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에, 체전 개최 소식에 학생들은 설렘을 감추지 못했다. 이른 시간부터 시작된 신한대체전. 학생들은 그동안 달궂은 투지를 불태우기 위해 운동장으로 모여들었다. 경기 종목은 신한리그(농구, 배드민턴, 축구, 피구)와 단체 종목(줄다리기, 꼬리잡기, 총학생회를 이겨라, 미션계주)이었다.

깃발 사열 및 개회식을 시작으로 체전의 막을 열었다. 먼저 4월 27일부터 5월 11일까지 사전에 진행됐던 예선전에서 승리한 학과들의 결승전이 진행되었다. 축구, 농구, 피구 등 주요 구기 종목들의 결승이 펼쳐졌으며, 출전 선수들은 뜨거운 응원과 격려 속에 경기에 임했다. 결승전인 만큼 더욱 쟁쟁했던 경기는 지켜보는 이들의 함성을 자아내며 계속해서 열띤 분위기를 이어 갔다. 또한 학생 MC와 해설자 캐스터의 흥미진진한 중계는 결승전만의 재미를 더하는 데 한몫을 했다. 이후 태권도 학부의 시범 공연이 펼쳐졌다. 그들은 내리찍는 햇볕 아래에서도 흐트러짐 없는 시범을 선보이며 대회 분위기를 더욱 달궂여주었다.

오후에는 단체 종목 경기가 펼쳐졌다. 체전이라면 빠질 수 없는 줄다리가 바로 첫 경기였다. 줄다리기에서 1등을 차지한 학과에는 무려 400점이 부여된다. 이에 각 학과 별로 줄다리기 출전 선수들의 곁에서 힘찬 응원을 보내며, 경기 시작 전부터 치열한 신경전이 일었다. 선수들은 승리를 거머쥐기 위해 열심히 줄을 당겼다. 다음으로 꼬리잡기와 단체응원전 순으로 경기가 이어졌다. 단체응원전은 말 그대로 학과별 응원전을 펼치며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이벤트로, 우승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점수를 얻을 수 있는 경기이다. 그렇기에 학과 별로 각 학과의 색을 나타내는 힘찬 응원을 선보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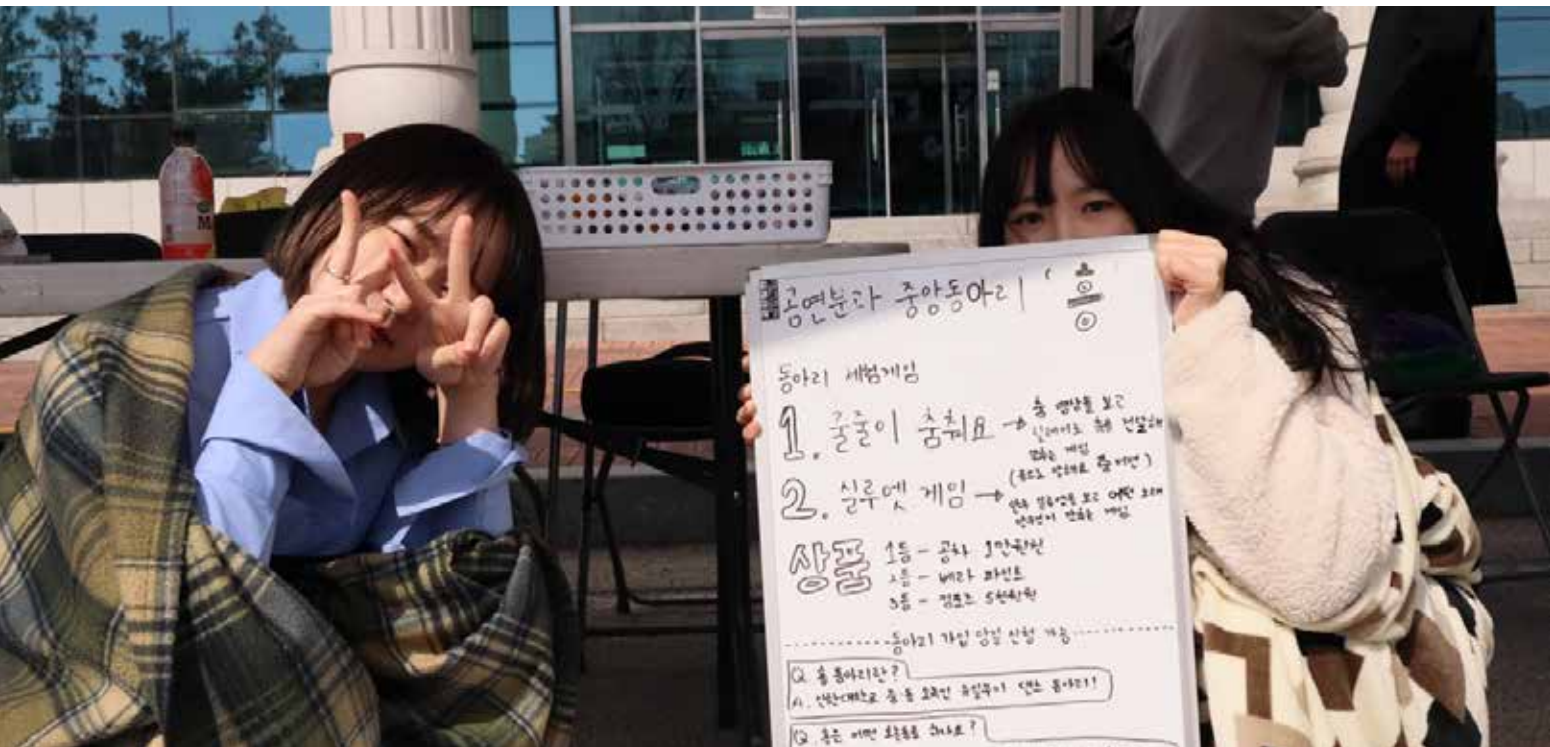
승리에 한발 다가섰다. 응원전 이후에는 '총학생회를 이겨라' 이벤트 경기가 시작했다. 총학생회를 이겨라는 신문지 게임, 림보, 혼성계주 세 종목으로 진행되었다. 각 경기에서 총학생회보다 오래 살아남거나 순위가 높은 팀이 점수를 얻어 갈 수 있는 방식이다. 일종의 이벤트 매치라고 할 수 있는 총학생회를 이겨라. 각 학과 사이에서 점수를 얻기 위한 경쟁이 또다시 일었다. 얇은 빗방울이 떨어짐에도 선수들은 물론이거니와 응원하는 학생들마저도 아랑곳하지 않고 경기를 즐겨나갔다.

마침내, 마지막 경기인 미션계주를 끝으로 시상식이 열렸다. 신한리그에서는 신설연합팀이 피구, 치위생학과가 배드민턴, 치기공학과가 축구와 농구 두 종목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대망의 종합우승은 1180점을 얻어 낸 치기공학과에게 돌아갔다. 2019년도까지 3연패 기록을 세운 치기공학과가 이번 체전에서도 승리를 거머쥐는 쾌거를 이루었다. 준우승과 3등 간의 순위 경쟁 또한 쟁쟁했다. 20점 차이를 두고 사회복지학과(880점)가 준우승을 차지했으며, 3등은 신설연합팀(860점)이 차지했다.

<조수빈 기자, 신혜미 수습기자>

2023 신한대학교 동아리 박람회 개최

대학 생활의 꽃 동아리, 직접 체험해보고 결정한다.
“동아리 활동을 통해 쌓은 추억과 경험이 제일 많기에 꼭 추천하고 싶다.”



신선한 바람과 학생들의 활기로 가득한 신한대학교의 3월, 2023 동아리 박람회가 개최되었다. 매년 학기 초 진행되는 ‘동아리 박람회’는 중앙동아리에 속해 있는 동아리들이 각 부스를 운영하며 재학생들에게 자신들의 동아리를 소개하고 홍보하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3월 14일, 15일 이틀간 신한대학교 에벤에셀관 앞에서 진행됐다. 이날 교내에는 동아리 박람

회에 참여한 11개의 동아리의 열띤 홍보 활동이 펼쳐졌으며 부스와 동아리를 체험해보고자 하는 학생들의 모습으로 붐볐다. 캠퍼스를 지나가는 학생들은 부스 앞 재밌는 볼거리와 흥미로운 체험들에 발걸음을 멈추고 행사에 참여하며 함께 즐기는 모습을 보였다.

동아리 박람회에 참여한 11개의 중앙동아리 중 음악동아리 ‘범’은 ‘1초 노래 듣고 맞추기’ 부스를 진행했다. 문제의 노래는 발라드부터 힙합까지 다양한 분야로 출제됐으며 동아리의 특색을 분명하게 보여준 이벤트였다. 힙합 동아리 ‘악당’은 제한 시간 내에 2개의 초성을 보고 맞는 단어들 나열하는 ‘초성 퀴즈’ 게임을 진행하였다. 부스 운영의 취지를 묻자, 한 부원이 “래퍼는 순발력이 생명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했다. 학교 내 흥을 책임지고 있는 공연부와 동아리 ‘흥’은 ‘줄줄이 춤춰요’ 게임을 통해 학생들이 부담 없이 참여하기 좋은 게임을 기획했다. 사진동아리 ‘아람사진연구회’는 동아리 내에서 그간 여러 곳을 다니며 촬영한 사진들을 전시하여 투표하는 부스를 운영했다. 그 외에도 CCC, SNS, 밀당, 치얼스, 한울, 소리패 등의 동아리들이 자신들만의 개성을 보여줄 수 있는 부스를 운영하며 동아리를 홍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모든 동아리가 단순한 홍보만의 목적이 아닌 재학생들이 직접 체험하며 즐길 수 있도록 부스를 마련한 것이 인상 깊었다. 동아리 체험과 더불어 간식 행사와 상품추첨까지 함께 진행되었기에 부스 참여의 재미가 더해졌다. 12시부터 1시까지는 동아리의 버스킹 공연도 진행되었기에 학생들의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이날 신한대학교 캠퍼스 내에는 학생들의 웃음소리와 음악 소리로 가득했다.



대학교 생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은 새로 입학한 신입생들에게는 설레는 경험을, 기존 재학생들에게는 새로운 추억을 안겨준다. 그렇기에 동아리연합회에서 주최한 ‘동아리 박람회’는 교내 여러 행사 중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는 행사로 꼽힌다. 봉사동아리 ‘로타렉트’에서 활동 중인 20학번 재학생은 동아리 활동에 대한 질문에 “동아리 하면서 쌓은 경험과 추억이 제일 많기에 신입생들에게 한 번쯤 꼭 추천해주고 싶다.”라고 답했다. 권지호 신한대학교 동아리연합회 회장은 “그동안 코로나 19로 인해 동아리 활성화가 어려웠었고, 당선 후 그 부분을 제일 먼저 해소하고자 노력했다. 날씨 등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학생들이 동아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아서 보람있다.”고 말했다. 이어 동아리의 존재 의미에 대해 묻자, “동아리는 학교생활에 지친 학생들이 쉬어갈 수 있는 쉼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신한대학교 학생들이 교내 여러 동아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즐거운 추억을 쌓기를 바란다.

〈김유진 기자〉



봄의 향기가 느껴지는 4월, 신한대학교 경영대학 제1대 학생회 '시즌'은 개강을 맞이하여 e-sports 대회를 개최했다. 경영대학의 e-sports 대회는 올해부터 개편된 경영대학을 이끌어가는 경영대학 1대 학생회 '시즌'의 당선 후 첫 행사다. 이는 학생들의 주된 관심 분야인 온라인 게임을 통해 동기들과 선후배 간의 새로운 추억을 쌓게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기획됐다.

e-sports 대회의 종목은 경영대 학생들의 선호도 조사를 통해 선정하였다. 따라서 사전 조사에서 학생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리그오브레전드'와 'FIFA'가 대회 종목으로 채택되었다. 먼저 진행된 'FIFA' 경기는 개인 출전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본 대회에는 윤현교, 전호성, 김승우, 옥상수 학생이 출전하였으며, 4명의 학생은 자신들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며 게임을 진행했다. 4월 12일 치러진 결승전에는 전호성 학생과 옥상수 학생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으며 경기는 흥미진진하게 전개됐다.

앞선 FIFA 경기가 개인 참가 방식이었다면, 리그오브레전드는 팀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가장 뜨거운 관심을 끌었던 리그오브레전드 경기에는 <Big경>, <어쩔우승>, <글미글미글>, <화물밀다움> 4팀이 출전하였다.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된 본 경기에서는 <어쩔우승>과 <글미글미글> 팀이 결승에 진출하였다. 4월 13일 치러진 두 팀의 치열한 결승전은 학생들의 이목이 집중되었고, 결승전을 관전하는 학생들의 열띤 응원이 이어졌다. 대회 결과, 리그오브레전드 부문에서는 <어쩔우승> 팀이, FIFA 부문에서는 전호성 학생이 우승을 거머쥐었다. 경기가 마무리된 후 추측과 우승팀 간의 기념촬영식이 진행되었고, 우승팀에게는 5만 원의 상품권이 지급되었다.

시즌의 장요한 행사부장은 이번 행사의 기획 의도에 대한 물음에 "개강하고 하는 첫 행사이기에 경영대의 모든 학생이 편하고 재밌게 즐길 수 있도록 기획했다"고 답했으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모두가 기억하는 1대가 되어, 2대 3대에게 좋은 모범으로 남고 싶다"는 각오를 전했다.

IT산업의 발전과 함께 e스포츠 시장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즌이 주최한 e-sports 대회는 학생들의 관심 분야를 적중시킨 행사라고 할 수 있다. 젊은 세대들의 불타는 열정을 엿볼 수 있었던 이번 행사는 경영대 학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과대 학생회의 존재 의미를 다시금 깨닫게 해준다. 시즌은 경영대학교의 초대 학생회인 만큼 경영대 학생들을 위한 여러 행사와 복지에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이들의 자주적인 행보는 계속될 것이다. 경기에 참여한 학생들은 물론이고, 경기 관전을 위해 경기장에 찾아온 학생들에게도 신선한 경험과 즐거운 추억이 되었을 이번 대회를 통해 학생들이 학업의 스트레스는 잠시 벗어두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기를 바란다.

<김유진 기자, 구현지 수습기자>

“온라인 게임하며 우정과 추억을”

신한대학교 경영대학 제1대 학생회 [시즌], E-SPORTS 대회 개최
FIFA 부문 [전호성] 학생 우승, 리그오브레전드 부문 [어쩔우승] 팀 우승



신한의 경쟁력, 마이크로디그리 교육 과정

4차 산업 시대를 대비한 혁신적 교육제도
35개 전공, 54개 교과목 설치 ... 1,601명 수강 중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사회 각 분야에서는 다양한 학문과 기술 융합이 시도되며 기존 산업 구조에 급격한 변동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세상의 변화는 이제 대학 교육이 하나의 전공에 대한 전문적인 능력을 함양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학문 간 융합을 통해 다양한 지식과 응용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신한대학교는 급변하는 사회수요와 교육환경 변화에 효과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마이크로디그리(Micro Degree)' 교육과정을 도입했다. 마이크로디그리는 기존 단일 전공 중심의 전통적 교육과정의 한계를 벗어난 '역량 중심' 교육과정이다. 또, 마이크로디그리는 전공 외 분야에 꼭 필요한 최소 단위(Micro) 학점 이수를 통해 학위(Degree)를 취득할 수 있는 '학점당 학위제'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주 전공분야 외에 다양한 학문들을 배우며, 실용적인 지식 융합과 응용력을 함양할 수 있다.

마이크로디그리 교육과정은 크게 자유선택형 과정인 SELF-DESIGNED CLASS와 과제참여형 과정인 TETRIS CLASS로 구분된다. SELF-DESIGNED CLASS는 학문 및 산업 분야의 성격에 따라 소프트웨어융합형, 첨단기술집약형, 미래산업고도화형, 지역친화형의 4개 유형으로 구분되고, 각 유형의 성격에 부합하는 다양한 전공이 개설되어 있다. 다른 과정인 TETRIS CLASS는 캡스톤디자인 고도화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 있고, 산업체와 교수자가 진행하는 과제 수행에 참여해 실제적 경험을 체득할 수 있는 현장 몰입형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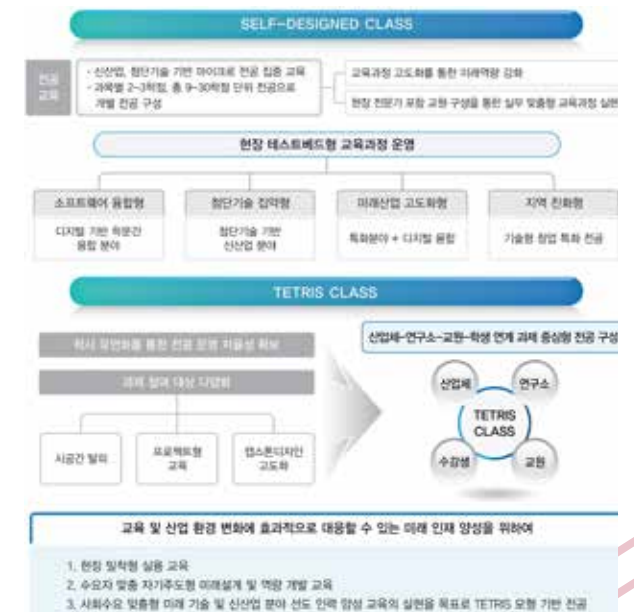
마이크로디그리 제도는 신한대학교 2022학년도 입학생들부터 졸업요건으로 설정되어 실행중이다. 사회 환경의 수요와 학생 개인의 관심도에 따라 자유로운 진로를 설계할 수 있도록 2023년 1학기 기준으로 35개 전공, 54개의 교과목 강의를 개설해 운영중이다. 현재 신한대학교에서는 1,601명의 학생들이 마이크로디그리 교육과정의 강의를 수강하고 있다.

신한대학교 임상병리학과에 재학 중인 22학번 김석현 학생은 "주전공 외 교과목을 수강해야 하는 것이라고 걱정이 많았는데, 막상 부딪혀 보니 까 다양하고 재미있어 보이는 교과목이 많았다"라며 마이크로디그리 교육 과정에 대해 느낀 바를 말했다. 주전공이 아니더라도, 대학에 진학하기 전 꿈꿨던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공부해 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여겨진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마이크로디그리대학 류현욱 학장은 "우리 대학에 마이크로디그리 교육 체계가 정착한다면, 국내 어느 대학에서도 성공하지 않았던 혁신적인 교육과정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불리게 될 것"이라며 마이크로디그리 이수 체계가 신한대학교만의 경쟁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또, 신한대학교의 교육이념인 '현장 중심의 인재 양성'에 맞춰 신산업 분야를 기반으로 하는 융합 교육을 현장 중심으로 실시함으로써 사회 수요에 부합하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서 류 학장은 "마이크로디그리 교육과정이 미처 학과로 개설되지 않은 새로운 학문 분야를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미래 교육을 실현하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라며 마이크로디그리 제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신한대학교의 새로운 전공이 만들어지는, 학문과 전공의 인큐베이터로 정착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표했다. 많은 구조 변화가 예상되는 현대에서 신한대학교 마이크로디그리가 대학 교육의 판을 선도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민성 기자〉



‘삶’을 그림 속에 녹여낸다.
전시: 에드워드 호퍼 - 길 위에서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개최한 <에드워드 호퍼: 길 위에서 Edward Hopper: From City to Coast>는 우리나라에서 열린 에드워드 호퍼 작가의 첫 개인전이다. 에드워드 호퍼는 20세기 초 현대인의 일상과 풍경을 독자적인 시각으로 그려낸 대표적인 현대미술 작가로, 그의 작품은 오늘날까지 세계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다. 특히, 호퍼의 작품들은 애니메이션과 영화에서 모티브로 사용된 것을 자주 볼 수 있는데, 7년 전 SSG.COM에서 호퍼의 그림을 패러디한 광고를 마케팅 전략으로 사용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호퍼의 작품활동은 태어난 뉴욕을 거쳐 파리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의 주된 작품 주제는 ‘관찰’이다. 그는 여러 공간에서 마주할 수 있는 사람들의 삶과 세상의 풍경에 대해 바라본 모습을 캔버스에 담아냈고, 거기서 보이는 삶과 업의 간극을 통해 독창적인 화풍을 구축했다.

가령, 작품 중 <푸른 저녁>은 파리의 카페를 배경으로 노동자, 매춘부, 광대, 예술가, 부르주아 등 다양한 인물들을 캔버스 하나에 담아냈다. 당시 이 작품은 호평받지는 못하였으나, 오늘날 작품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계급에 대한 무수한 의문을 남긴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또한, 호퍼의 작품에는 창문이 많이 등장한다. 창문을 통해 내외부를 바라보는 시선을 작품에 담아 도시인의 일상에서 포착할 수 있는 적막과 고독에 대해 다뤘으며, 빛과 그림자의 적절한 사용은 작품의 분위기를 입체적으로 만들어 낸다. 그의 독특한 시각과 경험으로 이끌어낸 독자적인 표현 방식을 통해 수많은 작품이 탄생했다고 볼 수 있다.

작가는 “말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림을 그릴 이유가 없을 것이다”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다. 그에게 그림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소통 창구이자 자신만의 화법이다. 유럽, 남미, 미국 등을 꾸준히 오가며 변화하는 세상을 기록하고, 작품을 통해 관람객들에게 자신의 지난 인생을 말하고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매력적이다.

우리는 각박하다고 평가받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다. 호퍼는 세상을 살아가고 관찰하며 느낀 것들을 표현할 수단으로 ‘그림’을 택했다. 그의 전시에서는 그가 걸어온 모든 여정과 경험이 작품 속에 깃들여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도 어쩌면 애써 감추고 있는 속마음이나 세상에 대한 궁금증을 드러낼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을까? 라는 물음을 던져본다.

<구현지 수습기자>



외적으로 보이는 삶보다 내적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방법에 관해 도서 : <나는 인생에서 중요한 것만 남기기로 했다>

에리카 라인 / 이미숙 옮김



복잡하게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럼에도 점점 더 바빠져 가는 현대 사회에서 우리들은 자신의 물건, 일정, 정신적 부담에 짓눌려 복잡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세상의 속도에 쫓겨 정신없이 지내다 보면 하루가 끝나고, 이를 반복하다보면 단순한 삶에 대해 열망하게 된다. 이토록 지친 현대의 우리들에게 저자는 삶에 '미니멀리즘'을 적용해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말한다.

이 책에서 미니멀리즘은 물건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에 관한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다. 핵심은 단순하게 비워내는 것이 아니라, 쓸모없는 것들에 최대한 멀어져 본질에만 충실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새 것을 사는 일과 낡은 것을 버리지 않는 일은 어수선한 공간으로 이어지며, 이는 물리적 잡동사니가 된다. 에너지를 깎아내는 감정적 잡동사니 또한 좋지 않다. 부정적인 생각은 하면 할수록 뇌에 깊이 새겨지게 된다. 물질적 잡동사니보다 더 오래 남아있을 수 있으며,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 가는 것이 내면에 미니멀리즘을 적용할 수 있는 첫 걸음이다.

가령, 삶에 즐거움과 성취감을 선사하는 것을 작성하게 된다면 어떤 것을 먼저 적게 될까? 저자는 대부분 사람들이 어제 새로 산 옷이나 지난주에 구매한 전자기기가 아닌, 가족과 친구를 우선하여 적을 것으로 생각한다. 만약, 그러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내적 요소인 인간관계가 내게 부정적인 요소라면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것과는 다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방치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이미 주변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있으며,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기회는 수 없이 많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이것이 저자가 말하는 '내면의 미니멀리즘'을 실천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한편, 미니멀리즘은 '시간'에도 적용할 수 있다. 시간은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자원이자, 낭비되는 자원이다. 하루의 매 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따라 삶의 궤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미니멀리스트는 어떠한 일이 자신의 장기적인 비전에 도움이 된다면 그 일에 기여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한다.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자유 시간이 생긴다면 SNS, 게임, 쇼핑 등 자유롭게 하고 싶은 것을 해도 되지만, 의식적으로 멈추어 질문을 던져보자. '내 시간을 투자해 하고 싶은 다른 일이 있을까?', '이 소중한 시간을 투자할 만큼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일인 걸까?'

필요성을 따지지 않고, 그저 충동적인 마음으로 구매했던 잡동사니들에 갇혀 답답하다고 느낀 적이 있었다. 미니멀리스트가 되어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난 후, 구매하는 양을 조금씩 줄이는 대신 정말 필요하고 오래 갈 것이라 믿을 수 있는 것들을 사기 시작했다. 내적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방법은 소비 습관, 마인드 관리, 인간관계, 시간 관리 등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으며, 인식의 전환뿐만 아니라 삶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노력이 필요하다. 동시에, 타인이 기대하는 삶이 아닌, 자신이 바라는 삶에 가까워질 용기를 내야 한다. 가치관과 일치하는 행동을 하면 내면의 확신을 얻을 수 있고, 비로소 스스로 안정감 있는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모두가 정신없이 달려갈 때, 한 발자국 천천히 확신과 내면의 여유를 가지고 가는 것. 그것이 '미니멀리즘'이다.

<최지원 수습기자>

CULTURE

기억의 부재를 기록으로 추억하다.

영화: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21년 한 해만에 누적 관객 수 100만명을 돌파한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는 제 26회 전격소설대상에서 미디어 워크스문고상을 수상한 일본의 로맨스 소설을 실사화해서 영화로 개봉된 작품이다. 역대 국내 개봉한 일본 실사 영화 중에서 2위 기록, 2022년 수입 실사 영화 1위를 달성하면서 우수한 영화임을 입증했다.

영화의 흥행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준 연출 감독은 '미키 타카히로'이다. 그는 일본 영화계의 감성 장인으로 불리며, 일본 로맨스 영화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름이다. 미키 타카히로 감독은 인물의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해내는 것이 특징이다.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또한 판타지 같으면서 현실인듯한 내용 전개 속에서 인물들과의 동일시를 통해 설렘을 표현해냈다.

영화는 아픈 가정사를 품은 토루(미치에다 슌스케)가 교통사고로 인해 선행성 기억상실증에 걸린 마오리(후쿠모토 리코)에게 사랑 없는 고백을 하고, 승낙받으면서 조건부 연애를 하게 되는 내용으로 시작한다. 가짜 연인인척 함께 시간을 보내다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지만, 마오리는 잠을 자면 모든 기억을 잃기 때문에 토루와 같이 한 모든 시간과 추억을 아침이 되면 잊게 된다. 그래서 마오리는 하루의 사소한 일상을 모두 일기장에 기록해서 다음 날의 마오리에게 과거의 기억을 전달한다. 그러다 토루는 심장병으로 급사하고, 결국 그녀의 기억에서 그의 존재는 사라진다. 하지만 반복된 행동은 뇌의 기억과 무관하게 어느 한 습관처럼 나타나기에, 마오리 역시 습관처럼 토루의 얼굴을 그림으로 그려낸다.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는 독특하게도 소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액자식 구성 방식을 영화에도 활용했다. 액자식 구성에서의 핵심 내용은 대부분 내부 이야기인데, 이 영화 역시 내화인 일기장 속 내용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일기장 속의 과거와 현재인 현실 세계를 화면 전환 연출을 통해 보여줌으로써 관객이 내용의 인과 관계를 납득하는 데 도움을 주는 효과를 줬다. 액자식 구성 방식이 극명하게 드러난 부분은 제3의 인물이 일기장 내용을 조작하며 마오리의 기억을 마음대로 바꾸는 장면이다. 내화에서는 조작된 일기장 속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지만, 관객들은 현실에서 이즈미가 일기장 내용을 조작시켰다는 외부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영화 해석의 여지가 좀 더 넓어지게 돼서 감정이입의 효과를 주어 몰입하게 만든다.

두 사람이 깊은 사랑을 하고 감정을 교류할수록 영화를 감상하는 시청자들은 더욱더 애뜻함을 느끼게 된다. 영화의 색감이 청춘 로맨스에 걸맞게 표현되어 있어서 시선이 가게 되는 매력 있다. 또한 타임라인을 잘 구성해서 과거와 현재를 넘나드는 장면을 매끄럽게 보여줌으로써 감정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연출시켰다. 영화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는 설레면 설렘수록 마음이 애뜻하게 저러오는 작품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청춘 영화이기에, 청춘남녀가 한 번쯤 감상하길 추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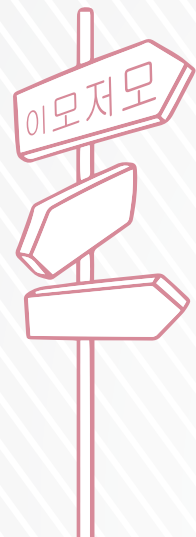
<신혜미 수습기자>



신한대, ESG 전문가로 구성된 ESG혁신위원회 출범 경기북부 ESG 경영 선도 대학 다짐

신한대학교는 13일 의정부 캠퍼스에서 ESG 혁신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신한대 ESG 혁신위원회는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및 정책 아이디어 발굴의 기회를 마련하고, ESG 관련 교내외 사업 추진의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하고자 ESG 분야별 전문성을 고려하여 외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신한대학교 ESG 혁신위원과 실무자 등 1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위원장인 이현 신한대 ESG 혁신단장의 개회사와 위촉장 수여식에 이어, 특별강연, 대학의 ESG 성과 창출 방안에 대한 논의의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신한대학교는 대학의 적극적인 ESG 경영 활동을 통한 ESG 성과 창출을 위해 전담 조직인 ESG 혁신단을 2018년에 국내대학 최초로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ESG 혁신단은 전략체계와 추진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ESG 아카데미 운영, 사회공헌 프로그램 개발, 사회적 경제 지원, ESG 경영 연구 및 포럼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ESG 성과 창출과 ESG 경영 촉진에 앞장서고 있다. 끝으로 이현 위원장은 “교내외 ESG 경영 인식 제고 및 촉진 프로그램과 ESG 기반 민관 협력사업 개발을 통해 신한대학교가 국민 체감형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위원 관계자들의 많은 조언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라고 전했다.

구현지 수습기자



신한대, 카자흐스탄 내부무 알마티 경찰대학교와 국제교류협력 업무협약 체결

신한대학교(총장 강성종) 국제처는 2023년 6월 8일 본교 믿음관에서 카자흐스탄 알마티 경찰대학교와 경찰, 사이버보안 및 드론 관련 교육 분야에 대한 국제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한 상호 업무 협약(MOU)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식에서는 신한대학교 강성종 총장을 비롯한 주요 보직 처장 및 학장들이 참석하였고, 알마티 경찰대학교에서는 사이트베코프 아이다르 총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양교 간 구체적인 교류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신한대 강성종 총장은 “이번 MOU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경찰 및 드론 관련 교육 분야의 국제화에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며, 추후 양국의 치안 및 군사 분야 인력 양성으로 협력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라고 말했다. 알마티 경찰대학교 총장은 “신한대와의 협력을 통해 사이버 보안 및 드론 관련 전문가를 양성하고 나아가 카자흐스탄 치안 분야 발전을 통해 카자흐스탄의 국제화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한다” 라고 답했다. 신한대는 10여년간 카자흐스탄 교육기관들과의 축적된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국제교류 활성화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공동 연구 및 프로젝트 수행, 학생 및 교직원 교환 등 다양한 교류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민성 기자



신한대학교 2023년 '소프트웨어중심대학' 사업 최종 선정

신한대학교가 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전국에서 2개를 선정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SW중심대학사업' 특화트랙에 최종 선정되어 향후 6년간 약 60억원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 올해 'SW중심대학사업'에는 일반트랙과 특화트랙을 합해 총 46개 대학이 신청하였으며 일반트랙에 11개 특화트랙에 2개를 선정하였다. 이번 'SW중심대학사업'을 계기로 경기 북부의 특성과 국방산업과의 협업을 고려한 '국방SW' 분야 중심의 전공과 연계전공 등을 전격적으로 개편·확장할 계획이다. 신한대학교는 타 대학과 차별화된 융합전공에 대한 무의수 제도인 소단위 전공제를 유연한 학사제도와 결합하여 획기적 SW교육과정의 성공적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성종 총장은 “성공적인 SW중심대학사업을 위하여 K-STAR 융합 교육을 통한 SW교육 가치 실현을 중점 추진방향으로 정하였고 총장부터 전체 교직원에 대한 SW교육 및 전공교생을 대상으로 SW융합교육을 전면 추진하여 대학이 목표로 하는 THE TECH-ONE 융합 인재 양성을 실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신한대학교는 'SW중심대학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수도권 및 경기북부의 SW인재양성을 대표하는 대학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최지원 수습기자

신한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신입생 제 5기 대학생 정신건강 서포터즈 영마인드 선정 전국 각지 대학교 총 100팀 중 2팀 선정!

신한대학교 상담심리학과 1학년 신입생으로 구성된 총 2팀(팀장 포함 7인 구성, 총 14명)은 대학생 중심의 정신건강 인식개선 프로젝트인 제5기 대학생 정신건강 서포터즈 영마인드에 선정됐다. 본 공모전 대외활동은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중앙정신건강복지사업지원단 및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주관했다. 지원서류 심사 및 지역/학과 배치의 형평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국 각지 대학교 재(휴)학생 중에서 총 100팀을 최종 선정했다. 신한대학교 상담심리학과에서는 총 2팀이 지원하여 2팀 모두 선정됐으며, 5월 24일 온라인 발대식에 참석했다. 선정된 2팀은 상담심리 전공지식을 토대로 정신건강 인식개선을 위해 5월부터 9월까지 서포터즈 응원 릴레이, 정신건강 바로 알기 캠페인, 정신건강 미디어 모니터링, 정신건강 소식 알리기 및 마음 투자 오프라인 캠페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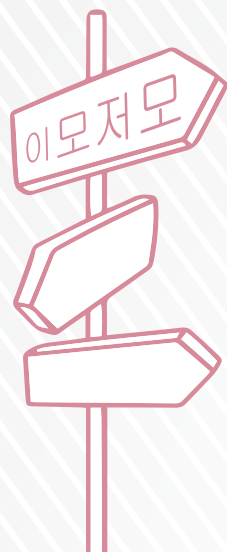
신혜미 수습기자



신한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전문상담교사 교원양성과정 신설 교육부 승인 획득

신한대학교 상담심리학과는 교육부로부터 전문상담교사 교원양성과정 신설을 승인받아, 상담심리학과 학생들은 교직과목 추가 이수 시 전문상담교사 자격증(2급 정교사)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교직이수 소급적용이 최종 승인되어, 교원자격검정 관련 규정에 따라 2023학년도 신입생부터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취득이 가능해졌다. 이번 교원양성 과정 승인과 운영을 통해 교육부가 지난 4월에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 맞추어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생들의 정신건강 증진을 책임질 전문상담교사를 양성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참할 예정이다.

최지원 수습기자



신한대학교 태권도학부, 싱가포르 칭게이 퍼레이드 축제에서 빛나다!

2월 3일 ~ 4일 싱가포르 칭게이 퍼레이드 축제 2만여 명 관객 앞에 선보여

신한대학교(▲총장 강성중)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약 3년 만에 개최되는 '싱가포르 칭게이 퍼레이드 축제'에 한국 대표로 참가했다. 축제에는 ▲싱가포르 Halimah Yacob 대통령과 ▲Lee Hsien Loong 총리를 포함하여 한국,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태국 각국 대표가 참석했다. 신한대학교 태권도학부는 한류 상경을 바탕으로 태권도의 역동적인 동작 퍼포먼스와 K-POP의 스트리트 댄스, 한국무용 등을 접목시켜 조화가 돋보이는 작품을 제작했다. 한국 특유의 공연은 싱가포르 현지에서 2만여 명이 넘는 관객으로부터 뜨거운 환호와 큰 관심을 받으며 막을 내렸다. 신한대학교 태권도학부 단장 이정아(신한대학교 태권도학부 교수), 부단장 한길수(신한대학교 태권도학부 총감독) 외 8명은 '싱가포르 칭게이 퍼레이드' 행사를 위

해 2개월가량 연습에 매진했다. 원장 최상진(신한대학교 태권도 교육연구원장)은 "이번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큰 노력을 해온 신한대학교 태권도학부 학생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또한, 신한대학교 태권도학부의 큰 발전은 우수한 학생들이 있기에 가능했습니다."라고 말했다고, 이번 행사를 준비해 온 학생들에게 큰 박수를 보냈다.

신혜미 수습기자

신한대학교, 2023학년도 정시모집 경쟁률 전국 3위 달성

-경쟁률 9.26 대 1, 2022학년도 대비 지원자 52% 증가

신한대학교가 2023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전국 4년제 대학 경쟁률 3위를 달성하였으며 지원 인원은 1,022명이 증가하였다. 223명을 선발하는 일반전형 I 은 2,199명이 지원하여 경쟁률 9.86을 기록하였고, 44명을 모집하는 일반전형 II 은 373명이 지원하여 경쟁률 8.48을 기록하였다. 실기우수자전형은 7.53 대 1을 기록하였으며 전체적으로 325명 모집에 3,009명이 지원하여 9.26 대 1을 기록하였다. 이는 전년도 대비 2.99 상승한 기록이다. 강성중 신한대 총장은 "신한대학교는 인재 육성제일주의를 지향하며, 국내에 머물지 않고 격변하는 세계사의 흐름을 맞춘, 세계를 향하여 꿈을 펼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하는 신한인을 육성하기 위해 혁신적인 교육시스템을 도입,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강슬비 기자



신한대학교, K-MOVE (해외취업연수사업) 최우수 연수과정 (A 등급) 및 최우수 운영기관 (A 등급)으로 선정!

신한대학교가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지원하는 K-MOVE 사업(해외취업연수사업)의 최우수 연수 과정 및 최우수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신한대학교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사)한·중남미협회의 컨소시엄 교육기관으로서 중남미 취업 연수 과정 국내 교육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2021년부터는 주 관리기관으로서 장기과정인 트랙 멕시코 과정을 전국 최초로 운영하였으며, 최근 발표된 2021년도 해외 취업 연수 과정 및 운영기관 평가에서 신한대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연수생 모집률(3:1), 수료율(85%), 취업률(100%) 등 모든 항목에서 모범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교육과정 운영, 연수생 지도, 취업자 사후관리 등의 항목에서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 2022년 11월 말 시작한 2기 과정생도 2개월간 국내 교육을 성공리에 마치고 멕시코로 현지 6개월 과정 이수를 위해 출국을 앞두고 있다. 사업 책임자인 김우중 교수는 "2년 연속 전국 최초이자 유일한 멕시코 트랙 과정 운영기관으로서 신한대의 역할과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특히, 신한대가 연수 과정 A등급을 획득하여 23년도 우수과정 모집공고 접수가 가능하며 정부지원금 증액 등 우대를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하였다. 최근 5년간 본 프로그램에 신한대생은 한해도 거르지 않고 최근 5년간 본 프로그램에 신한대생은 한해도 거르지 않고 참가해 왔으며, 15명 모두 연수와 취업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 1기 과정 연수생 20명 중 신한대 출신 5명은 100% 수료와 100% 취업을 하였으며, 2기 과정 8명 중 2명의 신한대 졸업생이 출국을 앞두고 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신한대생에게는 학생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개인 부담 연수비와 항공료 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구원지 수습기자

장인봉 신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경기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회의 대표 선출-

신한대학교 장인봉 행정학과 교수가 경기도 31개 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회의에서 대표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장인봉 대표회장은 호선으로 선출된 후 인사말에서 "우리 네트워크회의는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자체장들과 공동으로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역의 대표적인 지도자들이 다함께 하고 계십니다. 경기도가 인구 1,400만명에 육박하는 전국에서 제일 큰 광역지방자치단체인데, 우리 31개 시군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님들, 실무위원장님들과 함께 민·관 협력과 상생을 통해 지역사회보장 발전을 위한 큰 역할이 주어짐에 무거운 책임감과 함께 잘 할 수 있다는 희망과 각오도 갖게 됩니다."라며 "경기도의 건강하고 성숙한 지역사회보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 41조에 따라 설치된 기구이다. 이는 민·관 협치에 따른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비롯해 보건 의료, 빈곤, 건강, 교육, 고용, 주거가 포함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과 운영 등 지역의 사회보장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강슬비 기자



대학발전기금 기부자명단

여러분께서 후원해 주신 발전기금은 신한대학 발전을 위해 가장 필요한 곳에 사용됩니다. 또한 기부자의 요청에 따라 학과, 계열, 학교 지정 발전기금으로 사용되며 학술연구기금, 장학기금, 교육시설확충, 학술 도서구입기금과 기부자가 희망하는 특정 목적사업, 국제화기금 등으로 활용됩니다.

신한대학을 위한 사랑과 정성을 소중히 사용할 것을 약속드리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발전기금 계좌안내 : 국민은행 804837-00-000183 (예금주 : 신한대학교)

발전기금 안내 : 대외협력처 TEL. 031-870-3162~5 FAX. 031-870-3169

※ 발전기금에 동참하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강기봉	김인균	서동원	이승영	정인교	홍동희	스튜디오 드래곤 주식회사
강민준	김재용	서수연	이용결	정정인	홍승희	신명치과상사
강석만	김정훈	서장훈	이욱현	정지나	황경숙	신한대학교 학생팀 근로
강선옥	김중규	서한교	이용배	정진경	황만수	아이씨티웨이(주)
강성중	김중현	성기명	이윤지	정한별	황정호	에스비에스 미디어넷
강성현	김주신	송운홍	이은진	정희원	황희숙	에이스테크
고영아	김준석	신경환	이재은	조석연	(사)아이들과미래재단	에이씨티(주)
고태순	김지명	신용칠	이정아	조성심	(재)한국섬유산업연합회장학재단	오스텀 임플란트
고희정	김지윤	신유지	이정원	조성운	(주)경동소방산업	이영화강석판매유한회사
구효진	김진경	신종우	이정훈	조성재	(주)광명데이콤	제일항업(주)
권영길	김태원	신현근	이주현	조영숙	(주)다비치안경체인	주)천안메디칼
권운영	김현우	신희정	이찬주	조우택	(주)다일	주식회사 유비스포
권태순	김혜령	심재균	이청재	조윤희	(주)대산엘리베이터	주식회사 유피소프트
김기순	김호성	심화섭	이충환	조한아	(주)봄메디칼	주식회사 임포유
김남중	남궁혁	안원익	이택준	조혜선	(주)소프트피아	주식회사 지오앤
김대형	도안나래	안이수	이현	주영훈	(주)에스엠소프트	주식회사 청운실버케어
김명준	류재경	안태영	이현비	진선범	(주)우리강산시스템	주영인터내셔널(주)
김문성	류현욱	안화미	이현중	진원재	(주)유니텍사이언스	청운실버케어
김미소	민원표	양귀해	이현주	최경서	(주)유비온	한국마이크로칩테크놀러지(주)
김민정	민철기	양승희	이혜림	최병호	(주)의정부장례예식장	해양광기업관리유한회사
김보선	박광용	어응수	임병우	최봉국	(주)태건비에프	현대자동차(주)
김보혁	박돈신	오세인	임승희	최승구	(주)행복한 사람들	(주)동아홀딩스
김산	박선희	오이균	임애련	최에스더	DK메디칼솔루션(주)	(주)제이와이시스템
김상아	박성모	오해룡	임원선	최완규	GC KOREA	(주)하이덴탈코리아
김상현	박소정	오형철	임정화	최은수	경기도치과기공사회	레디프로젝트(주)
김소민	박소진	유은경	장운태	최지승	국민은행 의정부중앙종합지점	문용석
김소영	박수근	윤근노	장은주	최지우	네이버시스템(주)	서수연
김수경	박용배	윤미숙	장인봉	최지소	대성대지문화매스유한회사	임영진
김수민	박정현	윤지원	전영주	최한용	더 램프 주식회사	주식회사 진조미식품
김순남	박주원	이광규	전유찬	한경희	더존환경기술(주)	
김순옥	박진우	이규태	전현주	한수범	사단법인 위드다문화	
김승옥	박현수	이금숙	정상섭	한왕모	삼아사운드(유)	
김신아	박현철	이상록	정선도	한창식	삼원운송유한회사	
김양훈	박호균	이상은	정세훈	한태희	서안종합건설(주)	
김연아	배시애	이상혁	정연희	허준용	서울대병원신한동문회	
김옥자	변희진	이서영	정우용	홍경옥	수요예배	

신한대학교 발전기금 기부(약정)서

필수	<input type="checkbox"/> 동문 <input type="checkbox"/> 재학생 <input type="checkbox"/> 학부모 <input type="checkbox"/> 법인(기업) <input type="checkbox"/> 일반인(비동문) <input type="checkbox"/> 교직원 ※ 중복체크 가능			
	성명 (상호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사업장소재지)			
	필수항목은 법인세법 제24조 / • 소득세법 제160조 /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이 가능하며, 기부영수증 미 발급 기탁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동의해 주셔야 합니다.(후면 참조)			
인적사항	연락처			
	학적사항 ※동문만 기재	학과	년도 입학	년도 졸업
	직장명	부서명		
		직위		
	E-mail			
우편물 수령지	<input type="checkbox"/> 자택 <input type="checkbox"/> 직장	기부추천인		
약정	총액	금()원 (₩)		
	기간	20 년 월 일부터 총()회 / 월()원씩		
	기부금도	<input type="checkbox"/> 대학발전기금	(용도 미지정) *학교에서 용도를 정하여 사용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지정발전기금	() 지정 * 학과 연구소 등 사용자 및 용도를 지정할 수 있으며, 학과 장학금으로 지정하신 경우 학생 장학금 및 생활비 지원 용도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본인(기관)은 특정학생을 지정하여 장학금을 기부하거나 장학생을 추천 요청함에 있어, 본인(기관)과 특정학생 간에 이해관계가 없으며, 「청탁금지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input type="checkbox"/> 확인	
기부방법	<input type="checkbox"/> 무통장입금	입금계좌	국민은행 804837-00-000183 예금주 : 신한대학교	
	<input type="checkbox"/> 교직원급여이체	입금자명	<input type="checkbox"/> 기부자명과 동일 <input type="checkbox"/> 동일하지 않은 경우(입금자명 :)	
		별도의 급여이체 동의확인서를 제출 바랍니다.		

위와 같이 신한대학교 발전을 위한 기금을 기부(약정)합니다.

20 년 월 일

기부(약정)자

(날인 또는 서명)

※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필히 √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한대학교 총장 귀하

-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리며, 조세특례법에 의해 연말정산시 세금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 : 신한대학교 대외협력처 대외협력팀 Tel 031-870-3161~5 (Fax 3169)
- 우편 : (11644) 경기도 의정부시 호암로 95 신한대학교 대외협력처/대외협력팀

2023. 08 / 203호

편집후기

강슬비 기자

신한대학교의 이야기를 담은 신한톡톡 203호 발간에 함께할 수 있어서 뜻깊은 날들이었다. 학교 생활 중에서 가장 바쁜게 지낸 학기라고 자부할 수 있지만 함께한 기자분들 덕분에 잘 마무리할 수 있었다.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여 회의를 진행했고, 취재를 하고, 초고를 작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서로의 글을 컨펌해주면서 완성한 신한톡톡 203호는 나에게 또 다른 작품이 되었다. 학교 행사들도 다시 제자리를 찾아 현장취재를 나가면서 신문사의 취재 열기도 뜨거웠다. 함께 고생하며 발간까지 온 신문사 부원들에게 고맙고 고생했다는 말을 해주고 싶다. 신한대학교 신문부가 나에게겐 최고다!!!

구현지 수습기자

수습기자로서 처음 도전하는 신문사 활동은 설렘으로 시작해 책임감이 따랐다. 어떻게 기사를 작성해야 나의 글 일부가 독자에게 스며들지에 대한 고민의 시간이 길었다. 이런 무한한 시간 동안 편집장님과 부장 기자분들께 과분한 도움을 받아 글을 완성할 수 있었다. 모든 면에서 서툴렀지만,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 준 분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가득 찬 호로 기억될 것 같다. 앞으로 맞이하게 될 신한톡톡은 더욱 정돈되고 눈길 가는 글을 쓰기 위해 무던히 노력할 것이다.

김민성 편집장

코로나가 바뀌놓았던 삶의 양식들이, 다시 이전으로 돌아오고 있다. 내게는 이번 203호 신한톡톡도 다시 돌아온 이전의 양식 중 하나였다. 편집장으로서 첫 활동이기도 하고, 다시 코로나 이전의 방식으로 돌아가니 수습기자 시절에나 느꼈던 '막막함'을 다시금 느끼게 된 호인 것 같다. 내 부족함이 다른 국원들에게 더 많은 번거로움을 가져오게 하지는 않을까, 내가 선택하는 것이 정말 다른 이들도 마땅하다 여기는 것일까 등,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끝없는 의심도 품었다. 하지만, 결국은 나아갈 수 밖에 없었다. 그게 결론이다. 삶의 궤적은 복잡하지만, 또 생각만큼 복잡하지 않은 않다. 그저 '지금'에 최선을 다해보는 것. 어차피, 지금 내 모습에 대한 평가는 미래의 몫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나를 믿고 따라와준 수빈, 슬비, 유진, 민주, 지원, 헤미, 현지 기자에게 진심으로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싶다.

김유진기자

작년에 이어 이번 톡톡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던 것은 신문사 활동을 함께하는 이선민 교수님과 기자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나의 글로 모교의 소식을 알릴 수 있는 것은 값지고 의미있는 일임을 다시금 깨달았다. 기사를 쓴다는 것은 아직도 두렵고 막막하지만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모습에 보람을 느낀다. 다음호에는 지금보다 더 성장한 내가 되어있기를 바라며 편집후기를 마친다.

신혜미 수습기자

설렘 가득한 첫 대학 생활을 신문사 활동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한 학기 동안 수습기자로 203호 작성에 참여하면서 처음으로 교내 취재를 하고, 써본 적 없던 기사를 쓰면서 보람찬 나날을 보냈다. 기사 한 줄 작성하기 위해 고민하고, '썼다 지웠다'를 반복했던 순간들이 막막하게 다가와 힘들 때도 있었다. 하지만 편집장님과 기자 선배님들이 많이 챙겨주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내 이름을 건 좋은 결과물을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 인사드리고 싶다. 다음 학기에는 지금보다 한층 더 성장된 기자가 되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자가 되고 싶다.

이민주 기자

신문사에 들어와 첫 취재를 했을 때의 설렘과 걱정이 여전히 기억 속에 선명히 자리 잡고 있다. 그 당시에는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기자 활동에 임했었다면, 현재는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바뀌었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이번호 기사를 쓰면서도 어려운 점이 물론 있었지만, 걱정보다는 잘 할 수 있다는 용기가 더욱 컸던 것 같다. 다음호에서는 더욱 성장해 있을 내 모습이 기대된다.

최지원 수습기자

올해 신문사에 들어와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었다. 기사를 써본 경험이 없어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됐었지만, 활동을 이어 나가며 괜한 걱정이 있음을 느끼게 되었다. 글을 작성하는 과정이 너무 즐거웠고, 기사 피드백을 받으며 더욱 완성도 있는 글을 써야겠다 다짐했다. 나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인 열정이 이곳으로 날 이끌었고, 신문사에서 한 경험들은 내가 더욱 성장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 무엇보다 신한대학교의 소식을 알릴 수 있다는 사실이 의미 있는 경험이라 생각한다. 한 학기 동안 고생한 이선민 교수님, 편집장님, 기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하성문 기자

올해 신문사에 들어와서 벌써 네 번째 계절을 맞고 있다. 평소 혼자 기사를 써왔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만 잘 쓰는 줄 알았다. 하지만 신한대학교 신문사에는 나의 글을 잘 만져줄 수 있는 분들이 계셨고 나의 글은 한층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한다. 작게나마 글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 알게 됐고, 신문사 기자로서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어준 이선민 교수님과 동료, 선배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 좋은 글로 신한톡톡을 발전시킬 수 있다면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싶다는 다짐으로 편집후기를 마친다.

조수빈 기자

신문사 기자로서 한 학기의 활동만을 남겨두고 있는 터라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그럼에도 학교의 소식을 내 손으로 홍보지에 실는 것은 아직도 내게는 뜻깊은 일이지만 하다. 처음 신문사 기자로서의 활동은 기대감도 컸지만 막막하다는 감정이 가장 컸던 것 같다. 하지만 신문사 활동을 통해 발전하는 나를 보는 일은 꽤나 즐거웠다. 그렇게 지금껏 신문사 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남은 한 학기도 스스로 많은 것을 얻어가고 배워갈 수 있길 바라며, 어느 방면에서든 아쉬움이 적은 학기가 되었으면 한다.



신한50. *Made in 0!*

오래된 것이 비워질 때 새로운 것이 채워진다.

0은 무한한 가능성, 궁극적 혁신을 의미하는 아이콘.
신한대 개교 50주년 슬로건, 신한50.made in 0!은 오래된 것이 비워질 때
새로운 것을 채울 수 있다는 의미로써
지난 50년의 성취를 가슴에 묻고, 제로 스타트 하자는 선언이다.